

낮에는 민미협, 밤에는 부산식당

글 · 김학민 hakmin8@hanmail.net



매번 왜 이렇게 꼬일까? 지난 2월 말, 6월항쟁의 산실이자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중요 회의와 기자회견이 술하게 열렸던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의 사연을 취재하려고 계획하였는데, 막상 가보니 며칠 전에 문을 닫고 내부개조 공사를 하느라 난리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80년대 민중미술운동 그룹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조계사 건너편 인사동 골목 안의 부산식당(전화, 733-5761)을 찾아가 주인 조승민 씨와 인터뷰를 하려고 계획했는데, 아버지는 없고 아들 조장희(43세) 씨가 “아버지는 작년 11월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한다. 그분의 죽음이 내 탓인 것은 아니지만, 너무도 아쉽다.

1975년 5월 22일, 긴급조치에 반대하며 활복한 김상진 열사의 죽음을 추모하여 벌어진 서울대의 ‘오들들 장례식 시위’는 이제까지 학생운동의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시나 소설에 뜻을 둔 소위 문청(문학청년) 그룹과 연극, 탈춤 동아리의 ‘땀따래’ 등이 주도하여 성공한 운동이다. 그들이 이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1974년 민청학련사건으로 서울대학의 학생운동 세력이 싹쓸이되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하여튼 이 사건으로 이후 연극, 탈춤패들은 서울대학은 물론 다른 대학에서도 학생운동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4·19혁명처럼 전국의 모든 대학이 그리고 그 대학들의 전교생이 시위에 나선 때를 제외하면, 내가 학생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1970년대 중반까지 예체능계 전공 학생들이 개별적으로나 조직적으로 민주화운동에 가담한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학생운동권에서는 음대생이나 미대생은 대부분 사회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민족공동체에 대해 관심이 부족한 팔자 좋은 부잣집 아이들로 치부해 아예 학생운동의 ‘잠재자원’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1980년, 광주를 피로 물들이고 등장한 전두환 정권은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학생운동의 질적 양적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우선 국민들의 환심을 사려고 도입한 졸업정원제로 인해 대학생이 갑자기 배로 늘어나게 되자, 그에 비례해 학생운동가나 시위 참여자도 크게 늘었으니 전두환으로선 자승자박을 한 꼴이었다. 그리고 술한 시위와 점거농성 결과, 전국 대학들의 대중조직 역량과 전략 수준도 상향평준화 되었다. 박정희 시대는 몇 몇 대학만 집중 마크하면 되었지만, 전두환 때는 모든 대학이 화약고였다.

이러한 학생운동의 대중화와 일상화는 일차적으로 다소 소극적이었던 남녀공학 대학들의 여학생이나 여자대학교 학생들의 적극적인 운동 참여를 이끌어 냈다. 그리고 198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는 예체능계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학내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경희대 체육과 학생으로 우리나라 청소년 농구 대표선수였던 고광현(현 한겨레신문 사장), 중앙대 체육과 학생으로 유도 선수였던 임재선은 학생운동과 육체운동을 함께 한 문무겸전의 운동가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80년대 초반 들어 조직된 문화예술 각 부문운동에 크게 활력을 불어 넣어 주었으니, 그중



김용태 민예총 이사장(왼쪽)과 필자

전두환 독재정권 하 민족미술인협의회(민미협)의 투쟁과 역할이 불만 하였다. 민미협이라면 화가 손장섭, 오윤, 김정현, 임옥상, 신학철, 주재환, 홍성담, 최민화, 이철수, 유연복, 박불똥, 미술평론가 김윤수, 원동석, 최민, 성완경, 유홍준, 윤범모 등 우리 화단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떠오른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고독한 개인작업에 익숙한 이들 화가들을 불러내 모으고 부추기고 엮어왔던 김용태(현 민예총 이사장)를 빼놓고 민미협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민미협 이야기를 듣기 위해, 그리고 부산식당 이야기를 듣기 위해 김용태 이사장을 부산식당으로 불러냈다. 술시가 되려면 아직 멀었지만 김 이사장은 소주를, 나는 막걸리를 한 되 시켰다. 아들에게 어머니를 찾으시니 돌아가신 조승민 씨의 부인 팽홍숙(70세) 씨가 주방에서 나오면서 김용태 이사장을 보고는 울음부터 터뜨린다.



부산식당의 음식은 미식가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지금은 조승민 씨의 아들 조장희 씨가 그 맛과 멋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 바깥양반이 김 이사장님을 얼마나 좋아 했는데,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요즈음은 76세면 한창인데, 너무 안됐어요.”

부산식당은 1976년부터 인사동 한 곳에서 지금까지 문을 열어왔으니, 그 역사 33년이다. 세관 공무원이었던 조승민 씨는 충청도 출신이지만 경상도 사람처럼 무뎉뎉하여 나도 여러 번 부산식당에 왔지만 이제까지 그가 부산 사람인 줄 알았다. 김용태 이사장의 회고다.

“이 집 아저씨는 식당 주인을 넘어 민주화 인사로 행세하지는 않았지만, 참으로 인정이 많았던 분이지. 화가들이 모였을 때 내가 술값을 내려 하면 판정 부리고

절대 받질 않아. 왜 돈 없는 내가 내냐, 교수로 월급 받는 김정현이나 유홍준 보고 내라는 거야.”

김 이사장이 팽홍숙 씨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민미협 후배들이 외상 지고 안 갚은 것도 있지요? 외상값 대신 그림으로도 주었을 거요.”

“잘은 모르겠구요. 우리집 양반을 그린 초상화가 있어요. 따로 초상화 그려 달라고 부탁은 하지 않았을 테니 그게 외상값 대신인가? 누구 전시회든가, 그림을 한 점 사기도 했어요. 아마 싸게 주었겠지요.”

우리나라 미술운동은 1969년 오윤, 임세택, 오경환이 ‘현실’ 동인을 결성하고 제 1선언문을 발표함으로써 태동된다. 이후 개별적으로 작품 활동을 해 오다가 1979년 원동석, 성완경, 최민, 손장섭, 오윤 등이 ‘현실과 발언’ 동인을 결성하고, 이듬해 9월 창립 전시회를 열었으나 그림이 불온하다 하여 전시장의 전기를 끊어 촛불을

켜고서야 그림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민중미술 그룹이 조형적 표현을 무기로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윤의 판화운동을 이어갔던 김봉준, 이기연, 장진영, 김준호, 성효숙의 ‘두렁’ 동인, 이철수, 최민화, 유연복의 ‘힘’ 전, 박진화 등의 서울미술공동체, 홍성담의 광주미술공동체 등의 활동이 이어지고 드디어 1984년 11월 민족미술인협의회를 창립하기에 이른다.

“민미협은 단체 특성에 맞게 어렵사리 화랑을 하나 만들었지. ‘그림마당 민’ 이야. 여기에서 회원들의 작품 전시도 하고, 민미협 사무실로도 썼지. 그런데 특하면



민미협, 그중 김용태 이사장과 깊은 친분이 있던 주인 조승민 씨는 안타깝게도 지난해 운명했다. 그의 부인 팽홍숙 씨가 반갑게 맞았다.

전시장이 봉쇄되고 작품들이 압수되고 화가들이 연행되고 하는 거야. 그때는 한 판 붙고 농성하고 난리지. 그러면 부산식당 아저씨가 안절부절 못하는 거야. 몇 번이고 식당에서 ‘민’ 을 왔다 갔다 하며 상황을 보는 거야. 형사들에게 나 혼자 악쓰고 있는 거 보고 아저씨는 안타깝기만 한데 도울 수가 없으니…… 그 때문인지 부산식당 아저씨는 전두환을 무척 싫어했지.”

“미술패들이 언제부터 부산식당엘 드나들었어요?”

“76년 식당 열고 처음부터야. 우선 음식 값이 싸고, 또 웬만하면 값을 올리지 않았어. 그런데다 음식 맛이 좋으니 단골이 될 수밖에. 민미협은 회의건 모임이건, 전시회 오픈, 농성 뒤풀이건 항상 여기였지. 오윤의 죽기 전 마지막 전시회 뒤풀이도 여기서 했지.”

부산식당의 음식은 미식가들에게 널리 알려져 미술계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온다. 속을 확 풀어주는 생태찌개가 일품이지만, 손님마다 바로바로 해 내오는 밥은 어느 식당도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고들고들하게 지은 하얀 쌀밥 위에 팔 몇 알이 올려진 모습은 그야말로 예

술이고 그림이다. 그렇게 바로 바로 밥을 하기 때문에 부산식당에서는 절대 재촉해서는 안 된다. 음식을 시킬 때 밥도 처음부터 넉넉하게 주문해 놓아야 한다. 부산식당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아들 조장희 씨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그 맛과 멋을 이어가고 있다.

“전두환과 싸울 때 반고문전 열고 그림쟁이들이 판화 찍고 걸개그림 그리고 한 것은 다들 알지. 또 6월항쟁 때는 직접 가두시위에도 참가하고…… 그런

데 말야, 우리 도움 안 받은 단체는 거의 없어.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전교조 모두 사무실이라도 내려면 기금 마련 전시회 했잖아? 그런데 그 그림들이 어디서 나와? 내가 화가들에게 반 강제로 내게 하고 유홍준이가 이 그림은 뭐가 이렇다 저렇다 구라 풀고 해서 판 거야.”

속으로는 그럴 법도 하다고 생각했지만, 마당발 김용태 이사장답지 않게 너무 생색을 내는 것 같아 좀 심통스럽게 어깃장을 부렸다.

“너무 그러지 마쇼, 나라 있고 그림 있지, 그림 있고 나라 있소? 민족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일 때 당연히 돈 있는 사람은 돈, 재주 있는 사람은 재주, 힘 있는 사람은 힘을 내놔야지요. 그리고 그때 그 무시무시한 그림들이 팔렸겠소? 어차피 안 팔리는 그림을 가지고……”

글 김학민 | 민주화운동으로 수 차례 투옥된 바 있으며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음식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blog.naver.com/hakmin8)